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조선 시대 학자들의 허심(虛心)의 독서관

주자는 책을 읽을 때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되 자신의 견해를 세워 글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물(物)로서 물(物)을 보듯, 글로서 글을 보는 방법으로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황은 독서를 할 때 “성현의 말씀과 ㉠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나의 힘씀이 정(精)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글은 성현의 도를 담는 그릇이므로, 세계의 참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는 허심(虛心)의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황은 독서를 통해 하늘의 객관적인 이치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사로움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역시 독서의 선결 조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박지원은 “방과 창이 텅 비지 않고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없고 유리알이 비지 않으면 정기를 받을 수 없듯,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담박하여*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평생토록 독서를 하여도 배움에 진보가 없는 것은 사사로운 마음이 독서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독서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이황과 박지원은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박지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이 중요시한 ㉡ 집이란 기존의 상식이나 관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왜곡된 세계의 허상에 갇히지 않기 위해 선입견을 제거하고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정약용은 “독서를 할 때에는 먼저 ㉢ 자신의 주견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실학자들이 말한 허심이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공정한 주견을 얻게 되는 일이다. 책 속의 글자를 넘어 세계의 참모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곧 허심으로 보았던 것이다.

* 담박(澹泊)하다: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유향소와 향사당

조선 초 지방에는 자치 기구인 유향소가 있었는데, 이 기구는 전직 품관*들이 중심이 되어 주로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 초 중앙 정부의 손길이 잘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유향소는 향리가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수 있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한 유향소는 수령에게 조언하는 자문 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관아에 소속된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일을 규찰하고 바로잡을 뿐 아니라 풍속을 바로잡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유향소는 이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수령 또는 향리들과 결탁하여 부패를 저지르고 백성을 수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에 더하여 유향소에 속한 인물이 반역에 일부 가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조는 유향소를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림 세력이었던 김종직은 향리가 풍속을 해치는 것을 막고 향사례를 시행하기 위해 유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향사례는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의례로, 활을 쏘며 덕이 높은 이를 기리고 백성들에게 선을 권면하는 행사였다. 김종직이 속한 사림 세력은 중앙 관권의 지방 사회 장악을 반대하였기에 관 주도의 향촌 통치를 반대하며 자율적인 향촌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는데, 유향소 복원 주장에는 지방 사회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림의 시각이 깔려 있었다. 결국 성종의 윤허로 만들어진 기관은 향사례의 시행에 초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명칭도 유향소가 아닌 향사당으로 정해졌다. 향사당은 유향소의 성격을 이어받았지만, 지방 사족*들의 정치적 역할 수행이 주가 되었던 유향소에 비해 교육적 성격이 더 강한 기관이었다.

향리 세력의 권력 남용을 막고 향촌을 교화하는 것은 조선의 중요한 과제였다. 조선 시대의 정부는 각종 직임을 지방 사족에게 부여하여 그들을 지방 통치의 주체로 이끌어 냄으로써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향소와 향사당은 향리를 견제하고 향촌을 교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 품관: 고려·조선 시대에, 품계를 가진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

* 사족: 문벌이 좋은 집안. 또는 그 자손.

책선의 방법과 윤선거의 책선

(가)

공자는 친구와의 사귄에 대해 묻는 제자에게 ‘충고하고 바른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교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친구 사이에는 간곡하면서도 자상하게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나의 어쥌에 도움이 되는 이와 벗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맹자는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친구를 사귀는 것은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의 나이, 신분 등의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도덕적 품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는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책선(責善)을 강조하며 이를 봉우 간의 도리로 규정했다.

책선은 이후 송나라 때 생겨난 신유학인 정주학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책선의 실행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이 구체화되었다. 정자는 성의를 다하여 책선하되 말은 적게 하는 것이 상대에게 이롭고 자신에게도 욕됨이 없다고 했다. 책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장황하게 잘못을 지적하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배려하여 책선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주자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실부터 올바르게 살피고,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친구란 의리로서 맺어진 인위적인 관계이므로 친구가 책선을 듣지 않으면 그만두어야 하며, 계속 충고하다 소원해지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아무리 성의를 다해 진실하게 책선을 한다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이미 자신과 상대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이므로, 계속 충고하면서 원망을 듣기보다 조용히 관계를 끊어 자신의 성의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조선 중기 서인 계열의 학자인 윤선거는 도학적 실천을 통해 외조부인 성혼의 무실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실이란 학문과 삶에서 헛된 것을 배격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시한 성혼의 학문적 태도를 따라 윤선거도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윤선거는 마음의 성실, 진실성을 의미하는 실심을 만사의 근본이라 여기며 그것이 실덕과 실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실덕은 진실한 인격의 함양을 뜻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겸양, 성찰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실공은 진실한 노력을 실천하여 실질적인 업적을 성취함을 뜻했다. 윤선거의 책선은 무실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으로, 학문과 의리를 실천하는 데 실심과 실덕으로써 자기를 반성하며, 실공으로써 봉우들에게 선을 권하여 함께 군자의 영역에 이르는 것에 그 핵심이 있었다.

충청도 일대에 은거하며 서인 계열의 송시열, 이유태를 비롯해 남인 계열의 윤휴 등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했던 윤선거는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자신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란했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자 노비로 위장해 목숨을 부지했던 것을 큰 허물로 여겨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정에 출사한 봉우들에게 책선하는 방식으로 재야의 비판자 역할을 담당하고자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시열의 정치적, 학문적 위세에 눌려 송시열에게 직언하는 것을 기피했으나, 윤선거는 자신의 충고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송시열에게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벽된 기질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관직에 등용하는 사사로운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거듭 책선했다.

효종의 국상 때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송시열이 1년으로 정했으나 윤휴가 이에 반대해 3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인과 남인 간에 격렬한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히 장례의 예법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 현실 정치의 핵심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즉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장자의 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고,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장자의 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평소에 송시열과 윤휴에게 서로 협력하여 국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권해 왔던 윤선거는 예송이 당쟁의 방편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이 때문에 사회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둘 모두를 엄히 책망하며 윤휴에게는 도성을 떠나 지속할 것을, 송시열에게는 윤휴를 지나치게 배척하지 말 것을 권했지만 두 사람 모두 윤선거의 책선에 대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책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당시 정치의 논리에서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기의 인(仁)을 보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윤선거는 예송 논쟁으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송시열이 조정에 나가게 되자 정치 쇄신을 당부하는 편지를 썼다가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나중에 그의 아들 윤증을 통해 이 편지를 전달받은 송시열은 윤선거가 편지에서 윤휴를 포용하라고 재차 권한 것에 분노했고, 이후 윤증과 큰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을 따르는 측과 윤증을 지지하는 측 사이의 반목이 심화되었다.

형광등과 LED 전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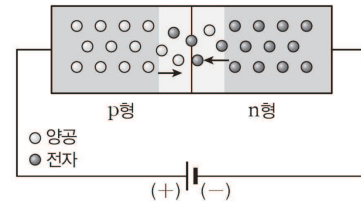
기체 등의 절연체를 사이에 낀 두 전극에 높은 전압을 가하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방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형광등은 방전 현상에 의해 발생한 빛을 이용하는 방전등에 속한다. 형광등은 양 끝에 필라멘트가 있는 유리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리관 안에는 수은 증기와 불활성 기체 등이 들어 있다. 필라멘트에 전압을 걸면 전자들이 방출되는데, 이 전자들이 수은 증기와 충돌한다. 이 충돌로 수은 증기에서 빛 에너지가 자외선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자외선이 유리관에 도포된 형광 물질과 만나면 형광 물질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도포된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가시광선의 색이 달라진다.

형광등에서 발생한 빛이 깜빡이지 않고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가 적어야 하는데, 가정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전류의 세기가 계속하여 변화한다. 이 때문에 형광등에는 전류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인 안정기가 있다. 형광등의 개발 초기에는 안정기에 코일이 들어있었는데, 코일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코일 내에서는 전류의 세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저항이 발생하여 전류의 세기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도록 만든다. 코일은 떨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후 코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 회로를 활용하는 전자식 안정기가 개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안정기를 활용함으로써 세기의 변화가 적은 전류를 형광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형광등은 수은의 위험성과 전력 효율 등의 문제로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여전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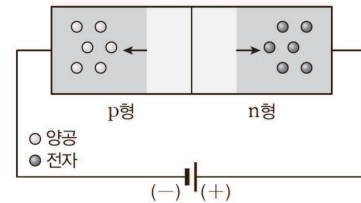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광 반도체 소자이다. 일반적으로 LED 전등은 형광등에 비해 적은 전력으로도 빛을 낼 수 있고 수명이 더 길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형광등을 대체하고 있다. LED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인데,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동한 뒤에 남은 구멍인 양공이 많다. 전자는 (-) 전하를 띠고, 양공은 (+) 전하를 띤다. 전류는 (+)극에서 (-)극으로 흐르고, 전자는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데, <그림 1>과 같이 (+)극과 (-)극을 각각 p형과 n형 반도체에 연결하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극의 영향을 받고, n형 반도체의 전자는 (-)극의 영향을 받아 각각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 결합하며 전류가 계속하여 흐르는데,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하며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된다. 이때 결합 전후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것이 LED 전등의 작동 원리이다.

한편 LED 전등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사용하여 빛을 낸다. 하지만 전등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는 (+)극과 (-)극이 교대하며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따라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 <그림 1>과 <그림 2>의 형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하지만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으로 인해 (+)극과 (-)극이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연결될 때만 전류가 흐르는데, <그림 2>처럼 (+)극과 (-)극이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연결되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극으로 끌려가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극에서 나온 전자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만나지 못하게 되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공급되더라도 LED 전등에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림 1〉



〈그림 2〉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

자석의 자극에는 N극과 S극이 있으며, 자석은 자기장을 만들어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긴다.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알기 위해서 막대자석의 가운데를 자르고 잘린 자석의 가운데를 다시 자르는 것을 반복해서 원자 수준까지 자른다고 하자. 각각의 잘린 자석도 N극과 S극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원자에도 자기장이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자석에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근원을 원자 수준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기장과 전기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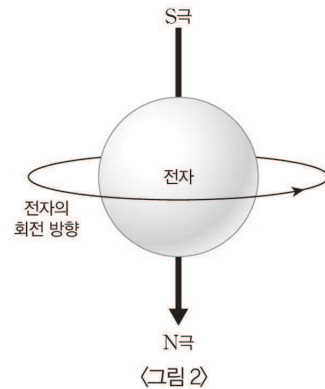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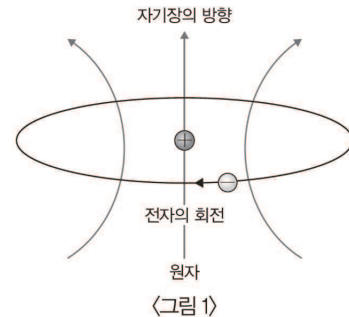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 하고, 자기장은 세기와 방향으로 나타낸다. 외부자기장에 의하여 물질 전체가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을 자기화라고 한다. 자기력은 자석이 다른 자석을 밀거나 당기는 힘으로, 강자성체를 당기는 힘과 반자성체를 밀어내는 힘도 모두 자기력에 포함된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외부 자기장이 사라진 후에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변에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고,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질 때에만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자기력을 작용하는 물체이다. 자기력은 전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힘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중심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다. 이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쥐는 방향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위치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원형 궤도를 따라 빠르게 원운동을 하며, 각각의 궤도에서 정해진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원자 모형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적용해보면 전자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 전하를 띠는 전자가 (+) 전하를 띠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다. 원자 속의 전자는 공전하고 있으므로, 전자가 있는 원자 속에는 작은 전류가 계속 흐르고 <그림 1>과 같이 자기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전자는 자전하지 않지만 자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즉 실제로 회전하지는 않지만 회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스핀이라고 한다. 전자는 (-) 전하를 띠고 있으며 스핀으로 인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양자 역학의 등장은 전자의 스핀으로 자석에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했다. 가령 두 개의 원자가 있다고 할 때, 원자 두 개가 점점 가까워지거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전자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크면 전자의 공전 궤도가 점점 겹치게 된다. 이렇게 공전 궤도가 겹칠 때 전자의 배치가 영향을 받으며 주로 스핀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전자의 배치는 파울리의 배타 원리를 따른다. 파울리의 배타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의 궤도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개수가 두 개라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공전 궤도에는 최대 두 개의 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때 두 전자의 스핀 상태는 서로 반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스핀 상태는 전자의 회전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정의된다. <그림 2>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스핀 상태와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과 그 방향을 N극과 S극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약 전자의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일 때의 자기장 방향은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와 반대 방향이 된다. 이를 통해 각각 하나씩의 전자만을 가진 두 원자가 있고, 이 두 원자가 가지고 있는 각 전자의 공전 궤도가 겹친다고 가정할 때,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같은 상태이면 각 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각각의 전자 중, 하나의 전자가 가장 안쪽 궤도가 아닌 외곽의 궤도에 위치하게 되고 자기력이 강해진다. 이와 달리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상태이면 각 전자는 각각의 가장 안쪽 궤도를 돌게 되며, 자기력은 상쇄되어 자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질은 물질 속에 있는 전자의 스핀이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 강자성체나 반자성체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강자성체에 자석을 가까이 놓으면, 강자성체 안에 있는 전자들의 자기장 방향이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정렬되면서 자기력을 갖게 되어 강자성체는 자석 방향으로 끌려간다. 자기력을 가지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는 이와 같이 전자의 스핀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지각에 대한 김창협 의 주장

성리학에서 ‘이(理)’는 모든 사물의 존재 및 생성과 관련된 법칙·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자 모든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며 ‘성(性)’은 각각의 개체에 깃들어 있는 ‘이’로, ‘본성’이라고도 한다. ‘기(氣)’는 ‘이’에 의거하여 현상 세계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질료로 만물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정(情)’은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 어떤 외부 사물 또는 사건과 대면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양태로 기의 영역에 속한다. 성리학에서의 정은 인간이 외부 사물에 대해 표출하는 인지적·정서적 반응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보았을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드는 것도 정이고, 책을 읽으며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것 역시 정이다. 형체가 없는 ‘이’가 기를 매개로 현상 세계에 드러나는 것처럼 성 역시 정을 매개로 현상 세계에 드러난다. 즉 인간의 본성은 형체를 가지지 않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될 때는 정 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성이 정 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마음, 곧 심(心)이라고 보았는데, 이 심과 연결되어 있는 ‘지각과 관련하여 17세기 조선의 유학에서 논변이 일어났었다.

17세기 조선에서는 주자학 문헌에 기재된 각종 어구와 주석이 주희의 의도에 맞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학문적 작업이 진행되었다. 원나라 유학 사상계에 영향을 미쳤던 중국의 호병문은 주희가 ‘지(智)’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지각(知覺)을 지가 발현된 기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주석했다. 그는 지각의 근원을 지라고 했다. 이는 지각은 기이고, 지각의 ‘이’는 지임을 의미한다. 17세기 조선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김창협은 호병문의 이 견해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고, 그의 주장은 마음에서의 지각과 관련한 논쟁을 일으켰다.

지각에 대한 이 논변의 쟁점은 지각의 근원에 대한 것이었다. 성리학에서 지각은 심(心),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감각, 인식, 판단 등과 관련된 능력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이다. 김창협은 마음을 기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기라고 보는 주희의 입장을 그의 정설로 보고, ‘이’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의 과정을 본성, 마음, 정 의 순서로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마음이 지각을 운영하여 정을 발현시킨다고 주장했다. 즉 본성인 인(仁)·의(義)·예(禮)·지(智)가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이 지각을 운용하여 인(仁)·의(義)·예(禮)·지(智)를 각각에 해당하는 정인,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정으로 발현시킨다고 본 것이다. 가령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마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본성 중에서 의를 근거로 지각을 운영해 불의를 부끄러워하는 정감인 수오의 정을 발현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지각을 마음의 본유 능력으로 보고, 지각의 근원은 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본성으로서의 지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준칙 또는 근거이고 마음은 지각을 운영하여 시비 분별을 실행하는 주관자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현상 세계에서 ‘이’의 실현이 기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성리학적 입장과 부합한다. 예를 들어 ‘인’이라는 ‘이’는 마음이라는 기의 작용에 의해 측은의정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음과 지각에 대한 김창협의 주장은 본성과 정을 객체, 마음을 주체로 놓음으로써 마음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등장하였고, 이는 노론의 이희조의 지각 논변으로 이어졌으며 이 논변은 훗날 호락 논쟁의 모태 중 하나가 되었다.

사실주의 연극과 상징주의 연극

영국의 산업 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등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된 동시에 여러 불합리와 모순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변화된 현실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사실주의 연극이 등장하였다.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프랑스의 철학자 오귀스트 콩트의 영향을 받았다. 콩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들은 과학적으로 논증되어야 하며, 사건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자유로운 서사 전개보다 합리적 구성과 명확한 인과 관계에 따른 논리적 전개를 지향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현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보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객관적이면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시대의 모습을 가장 진실하게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처럼 사실주의 극작가들은 예술의 본질이 외적 현실을 모방하는 객관적 재현에 있다고 믿었다.

대표적인 사실주의 극작가 중 한 명인 입센은 희곡 「인형의 집」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며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적 사회 질서를 충실히 드러내었다. 작품의 주인공인 노리는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따르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 또한 한 명의 인간임을 자각하고 극의 마무리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택한다. 이처럼 사실주의 연극에서는 내용이 명확한 인과 관계에 따라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물의 심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인물의 대사는 이전의 연극들과 달리 운문체가 아닌 산문체로 서술되어 당시 사람들의 현실 언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문이 많아지고 무대 묘사나 지시를 구체화하여 현실감을 드러내었다. 또한 사실성을 높일 수 있는 무대 장치나 각종 소도구를 활용하는 등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주의는 서구의 문화와 예술을 지배할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실주의의 기본 개념인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재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반사실주의를 주창한 이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대상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지향하며, 현실 재현에 치중하거나 상업화에 예속된 대중 예술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미적 쾌감을 높이는 순수 예술로서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①상징주의 연극은 일상의 모습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의 신비나 무한한 인간의 정신 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상징주의 극작가들은 연극을 상징적 이미지들이 관객과의 소통 수단이 되는 시적 드라마라고 생각하였다. 극의 목표가 서사의 전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롯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배경은 보통의 세계가 아니라 몽상의 세계로 설정되었으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공감을 얻는

인물을 배제하고 현실과는 무관하게 창조된 인물이 인간의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을 재현하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무대 위에는 극의 진행 과정을 환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도구만 준비되었다. 이렇듯 상징주의 연극은 희곡텍스트의 재현에서 벗어나 연극이 지닌 본연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찾고자 노력하며 현대 연극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분명하지 않다.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가변적이다.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일탈 중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설명한 것들이 많았다. 더그테일은 가계도 연구를 통해 유전 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고 하였고, 롬브로소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여 오늘날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후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무규범 상태가 바로 아노미이다. 뒤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하여 일탈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뒤르켐과 달리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인해 아노미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은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등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동조,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하는 경우에는 혁신이 나타난다. 의례주의는 문화적 목표는 거부하되 제도적 수단은 수용하는 경우에,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하고 나아가 새로운 목표와 수단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한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사회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탈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일탈에 관한 이러한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사회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성격 심리학의 자료 수집

성격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상황은 ‘모든’ 상황을 뜻하지 않고, ‘일관된’ 행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는다. 성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관찰되며, 여러 사람의 보편적 행동과는 다른 행동 패턴이라는 것이다.

성격 심리학에서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행동 패턴에 대한 법칙을 연구한다.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성격 검사이다. 성격 검사는 흔히 자기 보고식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기 보고식 검사란 검사 도구에 해당하는 잘 선별된 문항에 피검자 스스로가 응답하는 검사 방식이다. <표>와 같이 지시문에 따라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가 스스로 답을 하면 응답한 내용은 수치화되어 피검자의 성격에 대한 자료로 사용된다. 자기 보고식 검사는 믿을 만한 검사 도구와 피검자의 참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검자가 참여할 의지가 없다면 적절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해 피검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거나 피검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다음 문항이 당신에 대한 설명에 얼마나 가까운지 답하라.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친절하다.	1	2	3	4	5

<표>

자기 보고식 검사와 달리 타인 평정 검사는 피검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응답함으로써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기 보고식 검사가 어려운 미취학 아동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보호자로부터 수집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에 대해 피검자를 떠올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피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나 응답자가 보호자처럼 가까운 사람인 경우 피검자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성격의 어떤 측면은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투사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투사 검사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는 투사 현상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경쟁자를 질투하면서 그 경쟁자가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 경우가 투사의 예이다. 피검자에게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그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 피검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때 불편을 가리키며 “이게 뭐처럼 보이나요?”라고 묻기보다 하늘에 있는 구름을 가리키며 묻는 것이 효과적인데, 모호한 자극에 피검자의 마음속이 투사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즉 투사 검사는 투사가

일어나기 쉽도록 모호한 자극들을 제시하고 피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투사 검사에서도 피검자의 적극적인 반응이 중요하다.

투사 검사의 일종인 로르샤흐 검사나 주제 통각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통해 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는 검사이다. 로르샤흐 검사에서는 종이 위에 잉크를 떨어뜨리고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쳤을 때 나타나는 잉크 반점들의 그림을 보여 주면서 무엇처럼 보이는지 묻는다. 그러면 피검자는 검사 자극으로 유발된 시각 감각과 개인의 기억 흔적을 바탕으로 반응하게 된다. 로르샤흐 검사에 사용되는 그림들은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피검자가 일련의 카드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성격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 주제 통각 검사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들을 사용한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나이, 성별,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 피검자는 제시되는 그림들을 보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그러면 피검자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내적 욕구를 분석하여 성격에 대한 자료로 사용한다.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란 권력을 사용해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 정치라고 한다.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매우 유사하다.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에 대한 지원, 표준 도량형 확정 등과 같은 종류의 정책적 문제를 다룬다.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한 결정 같은 권력의 사용과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몇 가지 점에서 국내 정치와 중요한 차이점을 갖는다.

먼저 국제 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다.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중앙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 연합[UN]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결정을 강제할 자체적인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의 중앙 정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고 작은 국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동맹을 통해 더 강력한 국가들에 의존해야 한다.

국제 정치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국내 정치와 구분된다. 국제 정치에서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국민을 대리하여 국익을 위해 일한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 이익의 보호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이며, 이에 비하면 다른 것의 중요성은 한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에 비해 도덕적인 면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국제 정치에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국내 정치에 비해 국제 정치에서의 지도자들 간 의사소통이 더욱 어렵고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잘 알고 비슷한 경험과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며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행위자들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통역사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인데 이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된다. 문화적·종교적 차이가 있거나 공유된 가정과 동기가 부족했을 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국가 간의 의사소통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국제 정치 환경에서는 군사력이 국제 정치 참여자들의 주요 권력 기반으로, 국제 정치에서의 전반적인 권력관계를 결정한다. 그러나 군사력에만 의존하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 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이자 다른 국가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 국가라는 평판으로 이루어진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 또한 군사적으로 강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국제 정치 내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능력 있는 리더십이 한 국가가 국제 정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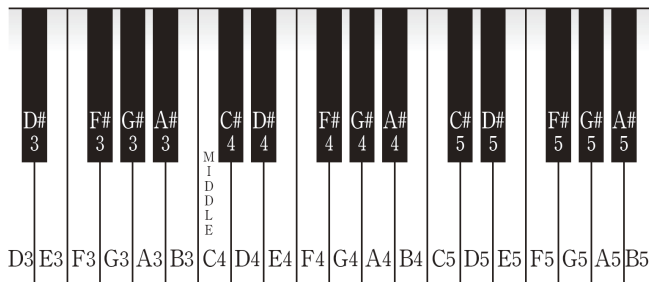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국제 정치에서 공통의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중심적 권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 체제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① 레짐 이론(regime theory)에 따르면 국가와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구성원들의 행태를 교정하는 국제적 공동체 내의 가치와 원칙의 집합인 ‘레짐’이 나타날 수 있다.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공유된 비전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레짐들은 무역, 인권, 정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영역을 다룬다. 예를 들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통화 기금(IMF)과 같은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국제 질서는 무역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체제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레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부국과 빈국 간 불균등을 묵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자체의 권력을 가진 가치의 집합이 존재해 왔다는 점과 그 가치의 집합이 국가들이 속한 권력관계를 넘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절대 음감과 음고

서양 음악에서는 음고가 올라가면서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인 C, C#, D, D#, E, F, F#, G, G#, A, A#, B가 반음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같은 음이름이 순서대로 반복된다. 이때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고를 식별하기 위해 <그림>처럼 음이름 뒤에 옥타브 번호를 넣어 'A4', 'A5'와 같이 표기한다. ㉠절대 음감은 어떤 음을 듣고 그것의 음이름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 음감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음을 들려주면서 각 음의 음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 후 그중 한 음을 들려주면, 그 음의 음이름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 ㉡흔히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음고는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음의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는 올라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음고는 내려온다. 음고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 음이름이다. 음악은 다양한 지속 시간을 갖는 다양한 음고의 음을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하여 만들어지는 예술이므로 음고는 음악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준 음고는 정해지지 않았고 서양에서도 19세기 초에서야 처음 정해졌다. 현대 서양 음악에서는 기준 음고로 피아노 건반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세 개의 연이은 검은 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검은 키 사이의 하얀 키의 음고 'A4'를 440Hz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준 음고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사용된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더 길었다. 보편적으로 정해진 기준 음고가 없어도 하나의 악단에서 협주할 때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표준 조율음에 맞추어 조율되면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음고 감각이 음악 활동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음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음정이 있다. 음정은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이 간격을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아니라 진동수의 비를 통해 인지한다. 가령, <그림>에서 A4(440Hz)와 E5(660Hz) 사이의 음정은 $660/440 = 3/2$ 으로 '완전5도'라고 불리는 음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음정은 높은 음고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낮은 음고를 나타내는 진동수로 나누어 얻은 비로 표현할 수 있다. 옥타브라는 음정은 진동수의 비가 2에 해당한다. 요즘은 서양 음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율에서는 한 옥타브에 등간격으로 12개의 반음을 배치하고, 온음은 정확하게 반음 2개의 간격으로 정한다. 반음을 나타내는 진동수의 비는 이므로 대략 1.06에 해당하고, 온음을 나타내는 진동수의 비는 1.06의 제곱인

1.12이다. 평균율에서는 반음의 개수로 음정이 정해진다. 반음 2개에 해당하는 온음은 장2도, 3개는 단3도, 4개는 장3도, 5개는 완전4도, 6개는 증4도 또는 감5도, 7개는 완전5도, 8개는 단6도 또는 증5도, 9개는 장6도, 10개는 단7도, 11개는 장7도, 12개는 옥타브에 해당한다. 악곡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음의 음정의 배열, 즉 수평적 배열로 선율이 만들어지고 또한 동시에 울리는 음의 음정 배열, 즉 수직적 배열로 화음이 만들어지는데 선율과 화음은 악곡의 정체성 부여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음고에 대한 감각인 절대 음감은 탁월한 작곡가, 연주자, 성악가, 음악 평론가가 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전문가가 되는 데 꼭 필요한 능력은 아니다. 음악의 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음고의 지각보다는 음정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이어지는 음과 음 사이의 음고의 변화, 즉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음정이 일치하고 리듬이 같으면 사람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라고 인식한다. 사람의 뇌가 음악을 들을 때 처리하는 정보는 음고, 음색, 음정, 화음, 음량, 리듬 등 다양하지만 이 여러 정보 중에서 뇌가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은 음고이다. 다른 정보에 대해서 뇌는 정량화된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음악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반면, 음고는 처음에는 의식하지만 곡이 연주되는 동안 곧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지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기억에서도 사라진다. 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음과 음이 연결되거나 동시에 울릴 때 두 음의 음고의 차이인 음정, 하나의 음이 어떤 음색을 갖느냐, 다수의 음이 어우러져 어떤 화음을 만들어 내고, 화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인지된 정보들은 작곡이나 연주를 평가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반면 개별 음들의 음고가 무엇이었느냐는 음악에 관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 일차적 대상이 아니므로 음악 활동에서 절대 음감의 중요성은 제한적이다.

* 키: 건반 악기에서 하나의 소리를 내기 위해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

공감적 읽기

[공감적 읽기]는 체독(體讀)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체독은 글의 표면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며 읽는 읽기이다. 이때 근본적인 의미란 필자가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나 의도, 필자의 심정이나 바람, 글의 의의 등을 아우르는 것으로, 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깊은 의미를 말한다.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그 뜻을 깊이 이해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선비나 수도사들의 읽기가 바로 체독의 전형이다. 공감적 읽기는 체독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의미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더 주목하는 읽기로서, 필자 혹은 인물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읽기로 볼 수 있다. 대면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에 제약이 있는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 비중이 커지는 근래 상황에서 공감적 읽기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감적 읽기를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에 서술된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사실적 읽기와 텍스트에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필자나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이해하는 추론적 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감적 읽기는 복잡하고 총체적인 현상이지만, 그 과정은 크게 ‘이해하기’와 ‘감응하기’로 나눌 수 있다. ‘이해하기’는 필자 혹은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지 그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고, ‘감응하기’는 그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다. 공감적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판적 읽기는 공감적 읽기와 같이 텍스트의 내용 파악을 넘어서 그에 대한 독자 나름의 의미 부여 행위가 작동하는 읽기로, 텍스트의 내용 혹은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여 거부하는 태도로 의미를 부여한다. 반면 공감적 읽기는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다가가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의미를 부여한다. 비판적 태도가 강하면 그만큼 공감적 태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감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가 균형을 이루거나, 공감적 읽기를 먼저 수행한 다음 태도를 바꾸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공감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의 작용에 시차를 둘 수도 있다.

공감적 읽기에 적합한 텍스트로 우선 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들 수 있다. 시 대부분은 시적 화자의 정서가 주요 재료이며, 소설과 같은 서사물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사건과 그에 결부된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료로 적합하다. 시나 소설이 아니더라도 필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공감적 읽기에 적합할 수 있다. 일기나 여행기, 일상적 경험이 담겨 있는 블로그 글 등이 대표적이다. 장르의 유형이나 종류뿐 아니라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나 주제도 공감적 읽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독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독자에게 친밀한 화제나 주제의 텍스트라면 공감하며 읽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SF의 특징

SF(Science Fiction)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 반응을 자극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초기의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려 낸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는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 위해 ①‘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 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용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용이 실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수빈은 SF를 인지와 낯섬의 상호 작용인 ‘인지적 낯섬’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와 구별하였다.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섬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수빈은 SF가 인지와 낯섬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은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것과는 다르다. 그리고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수빈은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섬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섬으로 이어진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며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SF의 낯섬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빈은 SF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다른 특징으로 ‘노뭉(novum)’을 이야기하였다. 노뭉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 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노뭉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술의 등장은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볼 때도 적용된다. SF에 등장했던 노뭉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SF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관점의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수빈은 노뭉이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SF에 등장하는 새로운 것들은 판타지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것들과는 달리 과학 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거나 아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과학 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구성이 가능하고 총체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수빈은 이러한 노뭉의 특성을 잘 구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SF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